



폐쇄된 행정복지센터 방역 2일 오전 광주 광산구 수원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자치방역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폐쇄된 행정복지센터 방역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광주·전남 전역 '마이삭' 태풍특보

최대 300mm 비 · 초속 40m 안팎 강풍... '철저 대비'

제 9호 태풍 '마이삭(MAYSACK)'이 빠른 속도로 광주·전남 지역에 접근, 폭우·강풍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우려된다.
2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마이삭'은 제주 서귀포 남남동쪽 약 190km 해상에서 시속 19km의 속도로 북북동진하고 있다.
중심 기압은 945hPa이며, 최대 풍속 초속 45m(시속 162km), 강풍 반경 360km의 '매우 강한' 태풍으로 분류된다.
광주·전남 지역과 태풍이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대는 이날 오후 10시~3일 오전 1시일 것으로 예보됐다. 비슷한 시간대 각종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
태풍은 서귀포 동쪽 해상을 거쳐 이날 자정께 여수 동쪽 90km지점을 지나겠으며, 오전 1시께 광주와 최근접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이후 3일 이른 새벽 부산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3일까지 전남 동부권 100~300mm, 나머지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100~200mm다.
남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20~40m(시속 72~144km)의 강한 바람도 불겠다.
특히 이날 밤 태풍 접근 시점과 만조시간대가 겹쳐 폭풍해일 위험이 크다. 서해·남해 전 해상에 파도가 4~10m로 높게 일겠다.
광주와 전남 22개 전 시·군에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여수시 거문도·초도는 경보가 유지되고 있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태풍 북상 경로상,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3일 오전까지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각종 시설·농작물 피해에 철저히 대비해 근접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공성남 기자

'광화문 발' 거짓 진술에 방역비 눈덩이

광주 369번 집회 참여 숨기고 출근...공장 생산 차질 수백 명 진단검사·시설 방역...혈세 낭비도 사회문제

보수단체가 주관한 광화문 광장 집회에 참석하고도 동선을 숨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가족 때문에 공장 가동이 멈추고 사회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공분이 확산하고 있다.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광주 369번' 환자인 A씨 일가족은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뒤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집에서 가족예배만 했다고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를 포함해 광주 363·370·371·372·373번으로 분류된 일가족 5명은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뒤 다음 날인 16~17일 연이틀 '광주 B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에서 가족예배만 했다고 진술했지만 휴대폰 GPS 조사에서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 일가족은 광화문 집회 방문 사실을 숨긴 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으라는 광주시의 행정 명령을 따르지 않아 현재 고발 조치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 중 장성군 소재 모 판지회사의 협력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는 A씨는 동선을 숨긴 채 지난달 28일까지 버젓이 사업장에 출근하고 주말인 29일에는 인파가 붐비는 광주 양산동의 도매 센터를 이용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방역당국의 추적을 피하지 못하고 자택방문 검사를 통해 주말인 30일 확진 판정을 받고 나주의 생

활지료센터로 이송됐다.
A씨가 확진되자 장성 소재 판지공장은 긴급 방역을 위해 하루 공장 가동을 멈추는 피해를 봤다.
또 공장 동료직원 111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해 일손을 놓고 불안에 떨어야 했다.
다행히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사업장 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6명은 현재도 자가 격리를 하느라 고통을 받고 있다.
A씨의 거짓 진술은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도 큰 피해를 입혔지만 국비로 지원하는 진단검사비와 사업장 방역에 소요된 혈세 낭비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A씨가 몸담고 있는 회사 대표에게 공장가동 중단에 따른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라고 권유했지만 영세협력업체 직원인 점을 감안해 선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성 주민 최모씨는 "판지공장에 장성 지역 사람만 수십 명이 다니는데 만약 집단감염으로 이어졌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며 "거짓 진술로 코로나19 차단 방역업무를 방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n차 전파가 잇따르면서 누적 환자가 388명으로 늘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명이다. /한동주 기자

광주·전남 '병상 나눔'...코로나 위기 돌파

위중환자 광주·경증환자 전남...나주 '생활치료센터' 운영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병상 부족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선 시·도간 '병상 나눔'으로 코로나 위기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부터 지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광주시와 유기적인 '병상 나눔' 체계를 구축, 환자 상태에 따른 체계적인 분산 배치로 위중증 환자의 부족한 병상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다.
두 시도는 '병상 나눔'을 통해 위·중증 환자는 음압시설을 갖춘 광주의 전문병원으로, 무증상과 경증환자는 전남의 공공의료원 등 전담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분산 배치하고 있다.
경증환자 치료시설이 없는 광주와 위·중증 환자 치료시설이 부족한 전남이 협치를 통해 병상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전남도와 광주시가 '병상 나눔'을 통해 공동으로 확보한 치료병원 및 시설은 8곳으로, 총 424병상을 수용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 현재까지 광주전남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537명이다. 이 중 209명이 음압시설을 갖춘 국가 지정병원과 의료원을 비롯한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시설별로 국가 지정병원은 전남대·조선대·화순전남대병원 등 3곳으로, 22병상을 확보했다. 현재 환자 15명을 치료중으로 7병을 더 받을 수 있다.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광주 빛고을전남대병원은 89명이 입원할 수 있다. 현재 50명이 입원해 39병상이 남아있다.
무증상 및 경증 환자를 돌봐줄 생활치료센터는 나주 소재 한전KPS 인재개발원 1곳으로 83명을 수용할 수 있다. 현재 17명이 입소해, 66명을 더 받을 수 있다. /김도기 기자